

1. 2024. 3. 29. 금 15시까지 고향백석 나는 북관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돌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2. 2024. 3. 29. 금 15시까지 훈민가정철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앓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지 마라 한적곳 때 실은 휘면 고쳐 씻기 어려우니.
3. 2024. 3. 29. 금 15시까지 십자가운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4. 2024. 3. 29. 금 15시까지 예전에 미쳐 몰랐어요김소월 봄가을없이 밤마다 돈는 달도 예전에 미쳐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쳐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줄을 예전에 미쳐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 예전에 미쳐 몰랐어요.